

“블록체인 전문가 한자리에… 시장 해결책 토론, 뜻깊은 시간”

리포 코리아블록체인워크 2023

올해로 6번째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코리아블록체인워크 2023(KBW 2023)’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KBW2023 메인 행사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는 참가자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속 성황리에 종료됐다.

‘컨퍼런스 IMPACT’는 지난 5~6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업계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연사 라인업도 화려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 ▲마이클 벨시 비트코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알레어 씨클 공동 창업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창업자 ▲파스칼 고티어 랫저 CEO ▲세르게이 나자로프 체인링크 공동설립자 ▲에드 펠튼 오프체인랩스 창업자(아비트럼) ▲마이클 벨시 빗고 공동창업 대표 등이 자리를 빛냈다.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2년 동안 장기화 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참가자들의 관심도는 높았다.

‘컨퍼런스 IMPACT’에만 6000여명



지난 5~6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KBW2023 메인 행사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마이크 벨시 비트코 CEO 등 참여 ‘컨퍼런스 IMPACT’ 6천여명 참가자

의 참가자가 방문했고, 티켓 역시 매진되면서 판매 조기 종료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행사에 참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블록체인에서 손꼽히는 인사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해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 프로젝트에서 홍보차원으로 연 부스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션은 다이너스티홀, 영빈관, 루비관 세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벤트 부스를 비롯해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 핸드폰 충전대 등도 마련됐다.

지난해 140명이던 스피커는 올해 200명을 넘겼고 행사 참여자, 사이드 이벤트 등도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부스 체험에서 글로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CHILIZ)가 좋다고 밝혔다.

칠리즈는 웹3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영역 내에서 블록체인과 팬 참여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가자는 “스포츠는 시대가 지나도



5~6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KBW 2023에서 참가자들이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인기가 시들지 않은 부분으로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해 다양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어 투자자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이다”고 말했다.

칠리즈는 현재 팬 참여 서비스 스타트업 ‘라이브라이크(LiveLike)’, 미국 ‘팬페스트(FanFest)’, NFT 플랫폼 ‘블록에셋’ 등이 칠리즈 생태계에 동참해 웹3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의 자회사 칼리버스는 부스에서 칼리버스메타버스를 선보였다.

초실감형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칼리버스는 극사실적인 비주얼과 고퀄리티 특수효과(FX)가 특징이다.

칼리버스는 사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이 현실 세계의 혜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순환구조 웹3.0 시스템 구

축도 계획하고 있다.

‘컨퍼런스 IMPACT’는 끝이 났지만 KBW2023가 끝난 것은 아니다.

KBW2023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The Gateway: Korea)’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게이트웨이 행사는 NFT 기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사.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는 오는 7~8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Factory)에서 개최된다.

맷 매드베드(Matt Medved) nft now 최고경영자(CEO)는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는 동서양을 이어주며 물리적, 디지털을 초월하는 독창적인 이벤트를 펼치기 위해 웹3.0 분야의 선두 주자인 주요 창작자와 혁신가들을 환영함으로써 이번 융합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페이가 대세… 전자지급결제 하루 1.2조

한은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상반기 PG 일평균이용액 16% 증가
선불서비스 9687억 거래, 21% ↑
간편결제는 하루 2628만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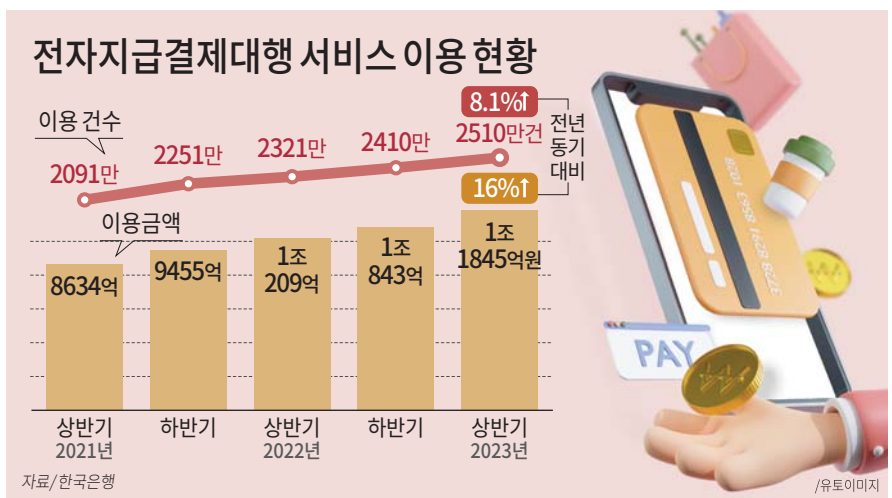
올 상반기 온라인 카드결제 등 전자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규모가 하루 평균 1조1845억원으로 1년 만에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삼성·LG·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16.9% 늘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1조1845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2510만건으로 같은기간 8.1% 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온라인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뒤 지급결제정보를 판매자에게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온라인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늘며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이용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상반기 23.6%, 2022년 10.9%, 2023년 7.2% 증가했다.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카드나 계좌를 연동해 선불금을 충전, 물건을 사거나 송금하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하루평균 2875만건으로 9687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6%, 20.8% 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선불전자지급서비스(escrow)도 증가했다.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거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일 평균 건수는 319만건, 액수는 1544억원이다. 전년 대비 액수는 24.8% 감소했지만, 이용건수는 1.2% 늘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앱 등을 통해 발행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인 전자 고지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 실적은 26만건, 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93.9% 증가했다.

비밀번호와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등 간편인증수단을 통해 결제·송금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는 하루평균 2628만건으로 1년전과 비교해 13.4% 늘었다.

특히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삼성,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을 통해 삼성페이, 애플 휴대폰을 통해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3.6%에서 올해 상반기 25.1%로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텔, 타워 세미컨덕터와 파운드리 동맹

인수는 불발… 3억 달러 투자 예정

인텔이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하지 못하는 대신 파운드리 협력을 약속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는 6일 타워 세미컨덕터에 파운드리 서비스와 300mm 제조 역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이번 협력으로 미국 뉴멕시코주의 인텔 생산시설을 활용하게 됐다. 이를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월간 60만장 이상 포토레이저 처리 역량으로 300mm 첨단 아날로그 프로세싱 수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텔도 뉴멕시코 리오란초에 11X팹

에 타워세미컨덕터의 65나노미터 전력 관리 BCD 플로우를 제조한다.

스튜어트 팬(Stuart Pann) 인텔 부사장 및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총괄은 “인텔은 세계 최초의 개방형 시스템 파운드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를 시작했다. 이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인텔 및 생태계 파트너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텔이 제공하는 특별한 가치를 타워 세미컨덕터가 인식하고 인텔과 함께 미국 내 300mm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한 것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IMF “韓, 당분간 긴축정책 유지해야”

기재부 ‘IMF 연례협의 결과’ 공개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최근 우리 정부가 긴축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관련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조치는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와 질서 있는 조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재부 등의 부처를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핑거 단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역시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내비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에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해 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